

대법원장 세금 탈루 논란 진화될까

“속인 일이 없다” 해명해도 누가 믿을지…

도덕성 의혹에 간담회 자정 돌파구 찾기
법조계 일각선 “신고 누락 납득 안돼”

이용훈 대법원장이 4일 2천여민원의 세금 탈루 사실과 관련, “속인 일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고 나서 탈루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조기에 진화될지 주목된다.

국민 개개인이 한 해 동안 2천여민원을 저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탈루 사실이 ‘사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 대법원장이 언론 앞에 직접 나섰다.

잇따른 영장 기각 문제로 법원·검찰 갈등이 불거졌던 작년 1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職)을 내놓겠다”고 말했던 것도 이번 사태를 키운 극단이었다.

◇고의적 탈루인가. 실수인가=이 대법원장은 4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11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속인 일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십일조를 교회에 내고 있는 ‘신양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애써 강조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받은 수입과 성공보수금으로 직원을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내고 세금을 납부한 뒤 남은 돈으로 십일조도 냈다며 ‘청교도’적인 생활을 해 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벌어들인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일은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했으나 직원의 소소한 실수로 이번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고 이 대법원장은 토로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료 30만원을 받은 것 까지 모두 기록된 수입내역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낼 때 두 세번에 걸쳐 직접 살펴봤기 때문에 세무사 직원이 이를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은 역임 한 변호사가 5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6개 월치 소득총액에서 빠진 것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 2천만원이 빠진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심스런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진로 대권자 ‘세나’ 페이퍼컴퍼니 몰랐나=이 대법원장이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를 대리했던 것에 대한 시각도 급지 않다.

이 대법원장이 받은 성공보수금 5천만원이 2003~2004년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왔던 진로 매각을 주도한 미국계 자본 골드만삭스로부터 건네진 것인 때문이다.

진로 재정자문사였던 골드만삭스는 페이퍼컴퍼니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를 아일랜드에 설립해 3천300억원짜리 진로 채권을 확보한 후 진로가 하이트맥스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1조2천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골드만삭스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잘 몰랐으며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세운 회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로의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고 채권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골드만삭스 측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며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檢, 정동재 의원 측근 ‘뭉칫돈’ 수사

정의원 곧 소환 상품권 인증제 바뀐 경위 조사 방침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열린 우리당 정동재 의원의 측근 계좌로 유입된 거액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을 조사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이 돈이 게임 또는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들어온 것인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자금인지, 계좌가 실질적으로 정 의원의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로 자금을 건넨 인사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상품권 정책이 인증·지정제로 바뀌면서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을 조만

간 소환해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2002년 도입된 뒤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인증·지정제로 바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된 문화부 공무원 6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유진룡·배종신 전 차관 등 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로 자금을 건넨 인사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상품권 정책이 인증·지정제로 바뀌면서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을 조만

검찰은 영상불등급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게임을 12건의 심사 순서를 앞당겨주고 업자들로부터 1천900여 만원 받은 브로커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재 의원은 이날 자신이 한 사업가로부터 수여원의 뭉칫돈을 건네받은 단서가 검찰의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는 일부 신문 보도와 관련, “명백한 허위보도이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이 보도한 사업가 A씨에 대한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수사결과 사실관계가 명명백하게 밝혀질 것인 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요즘 조절봉 왜 섹스 안해”

강재섭 性的 발언 물의

與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4일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외설시비를 낳은 문화일보의 연예소설 ‘강안남자’를 주제로 성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안남자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절봉이는 요즘 왜 (섹스를) 안해. 예전에는 하루에 3번씩도 하고 그러더니...”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오늘은 할까, 내일은 할까 봐도 절대 안하더라. 한번은 해 줘야지”라며 “절봉이가 기가 완전히 죽었다. 절봉이가 낙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그의 발언은 황우여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통해 농담으로 “제가 지난해 ‘강안남자’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대 대해 말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성나라당”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다. 강 대표는 문란한 성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대표가 어떤 선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스스로 정직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책임질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 호남서 당원 증가

한나라당이 정치적 불모지였던 광주·전남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데 이어 당원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자 무척 고무된 표정이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체 당원증가율을 조사 결과, 지난달 전남 고흥·보성과 광주 동구가 최고의 신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고흥·보성 지역은 지난해 11월 말 당비 2천원을 낸 책임당원(진성당원)이 63명이었지만 12월 말에는 305명으로 한 달새 385% 증가했고, 광주 동구는 같은 기간 23명에서 160명으로 595% 늘었다. 또한 광주 전체적으로 250명에서 510명으로 104%, 전남 지역은 650명에서 1천230명으로 89.2%의 신장률을 각각 보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본 학원 출신 2007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광주지역 17명 중 15명 합격(1차합격자 기준)

관점없는 공부는 ♦비일 뿐입니다.

국내영고시학원 겨울방학특강

무료공개설명회 1:1전문상담 환영 http://www.naeyoung.com

처음시작해서 학습까지 전답을 통한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내영고시학원은 오직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합니다.

개설 강좌

국내영교육학

개강 1월 6일(수) 4회

위재권 초등교육

개강 1월 3일(수) 4회

임미선 유아교육

개강 1월 12일(금) 4회

새단장 최적의 학습 환경구축

학습공간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개인 사물함, 스터디룸, 정독서실,

개인PC룸, 최첨단 영상강의실 완비

단체 10명 이상 수강등록 시 할인혜택

* 전강과 바깥유학(현재 정부지원 접수 중)

인터넷 동영상강의 에듀뷰넷

www.eduview.net

김성윤 전공생을 위한 전공교수

김성윤 전공생을 위한 전공교수

국내영고시학원 대표

전화 062-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산안 사거리)

공시 최고

이래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4. 5.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계율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5일

광주지방법원 특포지원원 판사정경근

신입 및 경력직원(설계·감리) 모집

당사는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및소방설계감리업체로써 금번 신규사업기술용역 참여 등 사세확장과 더불어 21세기를 함께 할 신규 및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분 및 자격

구 분	분 야	인 원	해 당 공 통 사 항 등
감리분야	•신규: 건축·토목	각 분야 0명	•신규: 설계·시공, 김리경력이 4년미만인 자
	•경력: 건축·기계 토목·전기 소방·통신		•경력: 김리사이상 전기·중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써 최근 기술보수교육5일 이상자우대(전기김리는 즉시투입가능자)
설계분야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	0명	•전기 또는 소방분야 설계기능자로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 가. 1차 : 서류전형
- 나. 2차 : 면접(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다. 자필이력서(반명판판 사진부착 및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연락처, 회망연봉 필히 기재)
- 라. 경력확인서(김리: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전기: 전력기술인협회, 기타: 해당경력기관)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 가. 접수기한 : 2007년 1월 10일부터 해당분야 인원 충원시(1월 31일)까지
- 나. 접수처 : 우편번호: 502-180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14(4층)
문의전화: 062-382-7560 (주)지에이엔지니어링 총무담당자 FAX: 062-382-7565
-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FAX전송 및 본인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GLOBA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소방설계 및 감리업]